

# 올 신규 공공건설 3.2만건·52兆 물량 선보여

올해 공공건설시장에 총 3만2000여건, 51조원을 웃도는 신규 공사가 풀린다.

금액 기준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한 규모로, 이 중 상반기에 절반이 넘는 28조원가량의 물량이 조기집행되며 공공공사를 둘러싼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본격 접화될 전망이다.

24일 조달청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과 한국도지주택공사(LH)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공사 집행계획 규모는 3만2375건, 51조7702억원이다. 건수는 전년(3만5289건) 대비 8.3% 감소하지만, 금액은 전년(40조3343억원)보다 28.4% 증가했다. ▶관련기사 8·9면

조달청이 금액 기준 전년(3만1473건·28조2343억원)보다 12.5% 증가한 31조7702억원, LH가 전년(68612·12조1000억원)에 비해 무려 65.3% 늘어난 20조원(902건) 규모다.

조달청의 발주계획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조2807억원으로 전

년해보다 금액으로 30% 증가 LH 역대최대 20兆, 조달청 8.5兆 경기회복 위해 상반기 28兆 발주

년(4조598억원) 대비 5.4% 증가하고, 공공기관이 17조1332억원으로 전년(12조8562억원)에 비해 32.2% 늘어난다.

반면 지자체는 10조3563억원 규모로, 전년(11조2183억원) 대비 7.7%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자체 물량은 내부 예산관계 등으로 인해 아직 발주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곳이 있는 만큼 감소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신규 공사 공공기관을 보면 중앙조달청구인 조달청이 8조5199억원 규모를 입찰에 부치고, 나머지 23조2503억원 규모는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개별 시스템이나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한다.

LH가 올해 선보이는 20조원의 신규 공사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입찰방법별로 보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가 14조4000억원(127건)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하고, 간이 중심제가 3조1000억원(164건·15.5%), 적격심사제가 2조1000억원(606건·10.5%),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이 4000억원(5건·2.0%)으로 그 뒤를 잇는다.

특히, 조달청과 LH는 올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공사의 55%에 가까운 27조8392억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일감 확보가 지상과제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신규 수주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경기회복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조달청 집행 예산금액의 63%인 5조3000억원 규모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라며 "예산된 발주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설계·총사업비기술 검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시설공사 조기집행 점검반"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황윤태박경남기자ht@

전년 대비 시설공사 발주계획 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A)		2019년(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행정기관	42807	40598	2209	5.4%
지방자치단체	103663	112183	-8620	-7.7%
공공기관	171332	129562	41770	32.2%
합계	317702	282343	35359	12.5%

조달청 신규발주 공사규모 상위 10건 현황 (단위: 억원)

순위	발주기관	공사명	금액
1	인천광역시	서동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1.2공구 건설공사	6495
2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하부공)	3675
3	대구광역시	상화로 입체화 사업	3160
4	국도교통부	서수-평장 도로건설공사	2877
5	국도교통부	농소-외동 도로건설공사	1896
6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1867
7	대구광역시	다사-왜관 광역도로건설공사	1335
8	국도교통부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1272
9	국도교통부	임실-장수 도로건설공사	1244
10	국도교통부	무주-설천 도로건설공사	1092
합계			24813

조달청 월별 발주계획 (단위: 건, 억원)

발주시기	신규		장기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월	307	16265	572	32736	879	49001
2월	225	6340	167	4764	392	10104
3월	368	7014	87	2103	455	9117
4월	162	9712	25	465	187	10177
5월	146	3622	28	474	174	3996
6월	138	11385	14	578	152	11963
상반기계	1346	53238	893	41120	2239	94358
7월	85	3106	10	87	95	3193
8월	52	2320	3	72	55	2392
9월	39	6204	11	535	50	6739
10월	39	10553	12	251	51	10804
11월	18	4738	4	188	22	4926
12월	14	5040	5	59	19	5099
하반기계	247	31961	45	1192	292	33153
총합계	1593	85199	938	42312	2531	127511

\* 다만, 발주 시기는 수요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발주금액 절반이상이 '공공기관' 사업건수 91.5%는 '상반기' 집행

조달청의 '2020년 공공부문 시설공사 발주계획'으로 마련된 올해 공공건설시장의 최대 승부처는 '상반기', '공공기관'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금액 기준으로 올해 조달청이 파악한 신규 공공공사의 70%에 가까운 물량이 상반기에 대거 집행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이 선보이는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공공기관' 물량을 잡지 못하면 올해 수주 공간을 채우기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을 제외하고, 올 한해 동안 집행 예정인 신규 공공공사는 3만1473건, 31조7702억원 규모.

이 중 올 상반기에만 2만8813건, 21조2392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금액 기준 전체의 66.7%, 건수 기준으로는 무려 91.5%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이다.

LH-한전 계의 '3.1만건-31.7조' 예정

월별로 보면 1월에 5조315억원(8718건)이 집행된 후 2월 3조8957억원(4624건), 3월 3조6023억원(7662건), 4월 2조5387억원(3087건), 5월 1조6451억원(2445건) 등으로 집행 금액 규모가 점차 감소하다가 상반기 마지막인 6월 들어 4조5259억원(2777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신규 공공공사가 몰아치고 나면 하반기에는 2660건(8.5%), 10조5310억원(33.1%) 규모를 발주하는 데 그친다.

올해도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물량 가뭄에 시달리는 '상고하자'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일감 확보를 위한 전력투구가 불가피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내놓는 신규 공사들이 올해 수주 실적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힌다.

올해 신규 공공공사 중 공공기관의 집행 규모는 6389건, 17조1332억원이다.

건수는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53.9% 수준으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 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올해 공공기관 물량은 지난해(12조9562억원)보다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지자체는 집행 건수가 2만2474건(71.4%), 집행 금액이 10조3563억원(32.6%)으로, 중소 규모의 공사가 많은 탓에 집행 건수는 훨씬 많지만 금액으로는 공공기관에 미치지 못한다.

중앙행정기관은 2610건(8.3%), 4조2807억원(13.5%)으로, 공공기관과 격차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보면 상반기와 공공기관에 물량이 편중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상반기에 발주되는 공사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물량을 따지지 못하면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knp@